숫자뉴스 24일

그룹 엑소의 4집 ‘더 워’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7월19일 발표된 ‘더 워’는 11일 기준, 101만2021장이 팔려나갔다. 정규앨범 4연속 밀리언셀러와 함께 자체 최단기간 100만장 돌파 기록도 세웠다. 종전엔 100만장까지 두 달이 걸렸다.

아이돌의 일탈, 별만 쫓는 스타시스템의 그림자

뉴스인사이드

온유 성추행으로 본 도덕 불감증

대마초에 툭하면 터지는 SNS 논란
데뷔 10년 안팎 아이돌 잇단 일탈
청소년기 사회적 교육 결여도 한몫
아이돌 육성시스템 변화 필요한 때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12일 서울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소속사 측은 “술에 취한 채 벌어진 해프닝”이었다면서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추행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은 그 신빙성에 무게를 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의 멤버도 성폭행 의혹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끝났지만, 연예계 안팎에서는 아이돌 스타들의 잇단 성추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룹 빅뱅의 멤버 탑 등 일부 아이돌 스타들은 대마초 등 약물 사건으로 팬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또 구하라와 가인, 박유천 등이 SNS에 남긴 글로 논란을 일으켜 구설에 오르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데뷔 10년 안팎…잇단 일탈, 왜?

이처럼 최근 아이돌 스타들의 비행 혹은 일탈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데뷔한 지 10년 안팎의 그룹 멤버들로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연예계와 팬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몰고 왔다.

이들은 데뷔 이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연예계 시스템과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고 평가받는다. 또 해외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케이팝의 전 세계적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며 한류의 선구자로서도 호평 받아왔다. 따라서 이들의 비행과 일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스타들의 일탈과 그로 인한 구설은 끊이지 않는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개별적 일탈로만 보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이들이 “특히 그 이전 수년간의 트레이닝을 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냈다”면서 “일반적인 교육체계에서 조금 벗어나 철저한 스타 양성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이들이 “스무 살 안팎의 이른 나이에 데뷔해 10여년 혹은 그에 가까운 익숙한 활동을 하면서 또래들의 성장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구조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다.

●트레이닝 시스템의 변화 필요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10여 년 동안 활동해오면서 이제 연예계 시스템에 익숙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데뷔 초반만 해도 소속사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 아래 무대에 나서지만, 이후 이 같은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때까지 쌓아온 연예계 내부의 위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관계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그 위상을 실제 현실의 그것과 동일시하며 그 간극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진단은 이제 국내 스타양성 시스템에 일정한 변화를 줄 때가 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일정한 사회적 교육과는 동떨어진 채, 오로지 스타 양성만을 위한 시스템으로만 감수성 예민한 시기의 10대들을 “교육·관리”하고 “통제”하는 한, 이들의 비행과 일탈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빅뱅 탑(왼쪽 위)의 대마초 사건에 이어 샤이니 온유(오른쪽)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구하라(왼쪽 아래)는 SNS 사진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끊임없는 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강하늘, 홀가분하게 입대하겠네

〈9월11일〉

올 초 영화 ‘재심’ 250만 동원 이어 ‘청년경찰’도 300만 관객 돌파 눈앞

배우 강하늘이 군 입대를 앞두고 개인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활발한 작품 출연으로 다양한 모습을 관객에 보인 것을 넘어 만족할만한 결과까지 얻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다.

강하늘이 박서준과 주연한 영화 ‘청년경찰’(감독 김주환·제작 무비락)은 15일까지 누적관객 260만 명을 넘어섰다. 올여름 극장가에서 규모와 주연배우들의 무게감에서 상대적 약체로 평가된 작품이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관객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청년경찰’은 개봉 2주째에도 잦아들지 않는 인기에 힘입어 손익분기점(200만)을 가뿐히 넘어섰고, 이제 300만 돌파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알찬 흥행’을 맛보고 있는 셈이다.

이로써 강하늘은 데뷔 후 가장 높은 흥행 성적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1년 ‘평양성’으로 스크린에 데뷔한 그는 매년 한두 편의 영화에 참여했지만, ‘대박’은 맛보지 못했다. 기존 최고 성적은 2015년 출연한 영화 ‘스물’을 통해 거둔 304만 관객이다. ‘청년경찰’은 3～4일 이내에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실 강하늘은 올해 주연한 또 다른 영화 ‘재심’으로도 만족할만한 성적을 거뒀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영화로 옮긴 ‘재심’에서 그는 억울한 누명으로 10년간 복역한 주인공을 연기해 242만 관객의 선택을 이끌어냈다. 뒤를 이어 ‘청년경찰’의 흥행까지 주도하면서 스크린에서 어느 때보다 몸값을 높인 상태다.

하지만 강하늘은 9월11일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전문특기병으로 입대한다. 자원입대하는 강하늘은 “군 복무 동안 지난 연기 활동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강하늘 ▶

명불허전 혹성탈출…역시 세긴 세군!

택시운전사·청년경찰 제치고 예매율 1위 전작 흥행·새 시리즈 호평 관객몰이 시작

‘군함도’의 기세가 꺾인 뒤 ‘택시운전사’와 ‘청년경찰’이 전국 대다수의 스크린을 점령하며 박스오피스 1·2위를 지키고 있다. 여름시즌 극장가에서 한국영화의 흥행세가 맹위를 떨친 최근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외화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8월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질 조짐이다.

유인원과 인간의 갈등과 대결을 그린 ‘혹성탈출’의 새로운 시리즈 ‘혹성탈출:종의 전쟁’이 15일 개봉했기 때문이다. ‘혹성탈출:종의 전쟁’은 2011년 ‘혹성탈출:진화의 시작’, 2014년‘혹성탈출:반격의 서막’에 이은 시리즈 마지막 편. 인간과 공존에 대한 신뢰를 배신당하는 유인원의 리더 시저와 퇴화해가는 인간 사이에 ‘종의 운명’을 두고 벌어지는 최후의 대결을 그린 이야기다.

‘혹성탈출:종의 전쟁’은 이미 앞선 두 작품이 입증한 흥행력을 이어받고 있다. ‘혹성탈출:진화의 시작’은 270만여명, ‘혹성탈출:반격의 서막’은 400만여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이에 힘입어 ‘혹성탈출:종의 전쟁’은 이미 ‘택시운전사’를 제치고 15일 오후 5시 현재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택시운전사’와 ‘청년경찰’이 장악한 스크린을 상당수 점유하며 그 공간을 넓혀가고 있다.

혹성탈출:종의 전쟁

이 같은 기세에 비춰 8월 중순을 넘기며 절정에 달한 한국영화 사이의 여름 극장가 흥행 경쟁은 한동안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사’와 ‘청년경찰’의 흥행세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윤여수 기자

드라마에 생기를…‘조연들의 반란’

최재웅·박진우·장성범·박순창 tvN ‘비밀의 숲’ 완성도 높여 KBS 2TV ‘맨홀’ ‘최강배달꾼’ 주변인물에 초점 신선함 더해

소위 원톱, 투톱으로 불리는 주인공이 맹활약해도 인기드라마가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출연자의 활약이 어우러지면 금상첨화다. 최근 종영한 tvN ‘비밀의 숲’이 좋은 예다. 제작진은 조승우 배두나 유재명 등 주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재웅 박진우 장성범 박순창 등 ‘주변인물’을 활용해 완성도를 높이고 호평을 받았다.

현재 방송중인 KBS 2TV 수목드라마 ‘맨홀: 이상한 나라의 필’(맨홀)과 금토드라마 ‘최강배달꾼’은 조·단역 등 주변인물을 주인공 못지않게 다루고 있다. ‘비밀의 숲’처럼 주변인물의 활용도를 높여 이야기와 등장인물의 다양함을 높이고 있다.

‘맨홀’은 김재중과 유이로 단번에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등장하는 이상이, 강홍석, 김민지가 예상외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극중 이상이와 강홍석은 김재중의 어린시절 동네친구로 각각 능청스러움과 우직함을 드러낸다. 김민지는 귀여운 외모보다 4차원의 백치미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단순히 ‘주인공의 친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 재미를 배가시킨다. 김재중과 유이가 짊어질 주인공이라는 무게를 세 사람이 개성 넘치는 연기로 분담하며 드라마를 함께 이끌고 있다.

‘최강배달꾼’에는 아직 시청자에게 낯선 신예들이 대거 등장해 드라마의 신선함을 높여주고 있다. 고경표와 채수빈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한 쪽에서 김선호를 비롯해 김기두 허지원 강봉성 윤정일 정익한 김민석 등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들은 출연 분량이 많지 않지만 주인공 주변에 항상 있어 시청자에게 눈도장은 제대로 받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드라마는 몇몇 주인공 활약에만 목을 매지 않고 조·단역의 조화로움을 따져 캐스팅 한다”며 “모든 에피소드가 주인공에만 집중되면 연기자도 부담이 가중되고 시청자도 피로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송혜교-서경덕교수 역사 안내서 1만부 기증

기증된 역사 안내서

해외 한국 역사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를 제공해 온 배우 송혜교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광복절을 맞아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교토편’ 안내서 1만부를 기증했다. 15일 서 교수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한국어 및 일본어로 제작됐고 단바망간기념관, 윤동주 시비, 고려미술관, 코무덤(귀무덤) 등 교토 내 한국 역사 유적지에 관한 소개 및 찾아가는 법 등을 전면컬러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일본 측이 안내서 비치 허가를 안 해줘, 한국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토 및 오사카 지역 민박집 10곳에 기증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폐막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15일 폐막했다. 이날 오후 7시 충북 제천 의림지 무대에서 열린 폐막식은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과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진행을 맡았다. 폐막식에서는 국제경쟁부문인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 섹션의 7개 작품 중 심사위원 5인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롯데 어워드’ 수상작이 폐막작으로 특별 상영됐다. 10일 개막한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6일간 여정이 이어졌다. 개막작 ‘장고’를 시작으로 ‘존 콜트레인 스토리’ ‘싱잉 슈즈’ ‘롤링 스톤즈 올레, 올레, 올레!’ 등 34개국 107편의 음악영화가 상영됐고, 김윤아 거미 박원 에피톤프로젝트 등 30여 팀의 가수 공연이 펼쳐졌다.

샵 출신 이지혜, 9월18일로 결혼식 하루 앞당겨

이지혜

혼성그룹 샵 출신의 이지혜(37)가 결혼식을 하루 앞당긴다. 15일 이지혜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해 “결혼식 준비는 잘되고 있다”면서 “원래 (9월)19일에 하려고 했는데 그날 큰 업체 행사가 있어서 18일로 하루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지혜는 세 살 연상의 사업가와 교제중이며, 9월 제주도에서 양가 가족 및 가까운 지인만 초대해 조용한 ‘가족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대만작곡가 방진강, “용준형 곡 표절 사과”

하이라이트(구 비스트) 용준형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만 작곡가 방진강이 유사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4일 ET투데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11일 발표된 대만가수 반위백의 신곡 ‘실면’을 공동작곡한 방진강은 소속사를 통해 “‘실면’을 만들 때 비스트 곡의 무의식적으로 몇 소절 쓴 것 같다.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받아들이고 싶다”고 사과했다. ‘실면’은 발표직후 2014년 방영된 MBC에브리원 ‘쇼타임-버닝 더 비스트’ 4회에 나왔던 용준형, 김태주의 곡과 멜로디가 흡사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용준형 측은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주셔서 감사하다. 저작권 침해에 관련해서는 정리를 한 뒤에 더 이상 용준형 씨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악 랭킹

자료:멜론
8월 7일～8월 13일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N분의1	넉살, 한해,…
2	비도 오고 그래서	헤이즈
3	에너제틱	Wanna One
4	요즘것들	행주, 양홍원, …
5	빨간 맛	Red Velvet
6	매일 듣는 노래	황치열
7	마지막처럼	BLACKPINK
8	널 너무 모르고	헤이즈
9	Artist	지코
10	좋니	윤종신

편집 | 안도영·김청조 기자